

「意幽堂日記」의 作者에 對하여

柳 鐸 一

I. 序 言

II. 作者에 對하여

가. 延安金氏의 否安과 宜寧南氏說
나. 作者 宜寧南氏의 確定

III. 「의유당유고」와 「意幽堂日記」

IV. 意幽堂 宜寧南氏와 惠慶宮洪氏

V. 結 言

I. 序 言

1977년 6월 제20회 전국 국어국문학 연구발표회에서 필자는 「의유당유고」(未發表)와 그 作者'라는 論題로 처음 발표되는 「의유당유고」의 內容을 소개하고 그 作者는 申大孫의 夫人 宜寧南氏임을 밝히면서 이 「意幽堂日記」의 作者도 宜寧南氏임을 주장하였다. 그 후 그 要旨를 根幹으로 韓國語文學會에서 發刊한 「朝鮮後期の 言語와 文學」¹⁾에 그 一部를 發表하였다. 그 論文은 「의유당유고」의 內容 소개 및 作者考證이 中心이 되었기로 이 「意幽堂日記」의 作者 問題는 宜寧南氏라는 結果만 보이고 稿를 달리 하여 좀 詳論할 것을 말했다. 그 詳論이 곧 本 論文이다.

그런데 筆者가 「의유당유고」와 그 作者를 發表하기 앞서 「意幽堂日記」는 延安金氏가 그 作者가 아니고 申大孫의 夫人 宜寧南氏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推定한 李妍聖님의 論文이²⁾ 있다. 筆者가 發表한 「의유당유고」

1) 韓國語文學會刊, 螢雪出版社, 1978.

2) 李妍聖: 「意幽堂關北遊覽日記」의 作者考, 隨筆文學 第3집(隨筆文學研究會 1974.12) pp. 63~77.

의 作者가 의유당 宜寧南氏로 밝혀짐으로써 李妍聖님 推定은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李義贊의 咸興判官 赴任年代와 「意幽堂日記」 안에 記錄된 年代의 矛盾에서 그 作者는 李義贊의 夫人 延安金氏가 아니라는 그의 논증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申大孫의 夫人 宜寧南氏라는 데는 推論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의유당유고」의 발굴과 그 作者考證에서 얻은 結果를 토대로 「意幽堂日記」 作者가 宜寧南氏라는 것을 再確認 및 「유고」와 「日記」의 관계 그리고 작자의 주변을 알아봄이 本攷의 到達點이다.

현재 國政교과서에까지 그 일부가 수록된 「意幽堂日記」는 1948년 5월 서울 白楊堂에서 刊行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고 그를 校註 刊行한 가람 李秉岐선생의 精確한 序文에서부터 그 作者는 李義贊의 夫人 意幽堂 延安金氏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그 序文의 內容을 넘어선 「意幽堂日記」에 대한 解題나 論攷가 과묵한 탓인지는 몰라도 없는 것 같다.³⁾

이같은 귀중한 文獻에 對하여 書誌的 解說도 없고 作者가 延安金氏라는 客觀的 攷證이 없다는 데서 우리는 일단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다.

가람선생의 序文으로서는 그 의심을 풀기가 힘드는 형편에 새로운 「의유당고」가 發見된 오늘에서는 더욱 「意幽堂日記」의 再檢討가 不可避하게 要求된다.

이에 「意幽堂日記」의 作者를 再確認하고 「의유당유고」와 「意幽堂日記」와의 관계를 살피며 作者 意幽堂의 周邊을 알아보기로 한다.

3) 근래 新丘文化社의 新丘文庫에 姜漢永교수에 의해 再校註되어 本日記가 刊行됐어도 그 解題는 역시 가람 선생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表紙 書名은 「意幽堂日記」라고 하였고 解說의 標題에는 「의유당집(意幽堂集)」이라고 하였다. 「意幽堂集」이란 書名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는지 매우 궁금하다.

Ⅱ. 作者에 對하여

가. 延安金氏의 否定과 宜寧南氏說

「意幽堂日記」의 作者에 對하여 從來의 延安金氏說을 否定하고 나온 분이 앞서 이야기한 바 李妍聖님이다.

그는 73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碩士學位論文인 「意幽堂關北遊覽日記의 研究」와 1974년에 '意幽堂關北遊覽日記의 作者考'에서 李義贊의 赴任 年代를 근거로 하여 延安金氏가 作者가 아니고 宜寧南氏일 것이라고 從來의 作者를 否定하고 著作年代도 60년을 더 올라간 英祖 48년 1772년 壬辰年이라고 推定하였다.

筆者도 1843년 憲宗 9年 癸卯 以前에 筆寫한 새로 나타난 「의유당유고」(寫本)의 作者를 考覈하던 끝에 申大孫의 夫人인 宜寧南氏가 作者이고 따라서 本日記의 作者도 의령남씨라고 일기 속의 사실을 증심하여 제20회 전국 국어국문학 연구발표에 발표하였다.

意幽堂日記의 作者가 李義贊의 夫人 延安金氏일 수 없다는 사실을 李妍聖님은

- ① 咸興判官 赴任年이 틀리고
 - ② 夫人이 틀리어서 延安金氏는 咸興判官이 되기 전에 죽었을(1792년) 가능성이 있고
 - ③ 第二夫人인 密陽朴氏 역시 義贊이 咸興判官 되기전에 죽었고(1821年)
 - ④ 第二夫人인 密陽朴氏가 正室夫人이 아니라고 假定할 경우 延安金氏가 (65歲(己丑)~68歲(壬辰))가 되므로 作品 內容과 다르다(이 作品은 60歲以後의 늙은이의 作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 ⑥ 또한 그때 外人物은 假定할 수 없는 것에, 作品 속에 '마누라님'이라는 呼稱으로 보아 正室夫人이어야 한다.
- 이러한 점으로 延安金氏는 부정적이며 申大孫의 妻 宜寧南氏가 肯定的이다. 그 理由는
- ① 咸興判官 부임 年代가 己丑에서 癸巳로 들어 맞는다
 - ② 夫人의 年이 壬辰에서 癸巳(43歲~47歲)로 作品 內容과 들어 맞는다.

4) 李妍聖: 意幽堂關北遊覽日記作者攷, 隨筆文學 3집(隨筆文學研究會刊 1974. 12) p. 76~77.

라고 結論지었다.

‘東溟日記’와 ‘樂民樓’ 속에 나오는 年代와 李羲贊의 咸興判官 赴任年代가 다르고, 延安金氏의 生存年代가 李羲贊의 부임 年代와 矛盾된다는 점으로 延安金氏는 作者일 수 없고 申大孫의 夫人 宜寧南氏가 作者라는 것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 괴록년 팔월 념소일 낙을 서나 구월 초이일에 함흥에 오니……

〈樂民樓〉

- 괴록년 팔월의 낙을 서나 구월초심의 함흥으로 오니……〈동명일귀〉

‘樂民樓’나 ‘東溟日記’ 다 같이 己丑年 8월에 서울을 떠나 함흥에 도착한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關北邑誌 咸興先生案條⁵⁾에 보면 분명하게 李羲贊의 이름 밑에 ‘庚寅到甲午遷’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소위 이희찬의 부인이라 하는 延安金氏가 썼다고 하는 「意幽堂日記」에는 己丑年이라고 되어 있으니 남편보다 부인이 1년 앞서 任地에 부임했다는 결론이다. 때문에 延安金氏가 作者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韓山 李氏 韓平君派譜」에 나타난 李羲贊의 配位를 보면

- 配 延安金氏 父牧使鑿 乙酉 二月三日生 壬子六月十日卒 生一男

- 配 密陽朴氏 父正言 猷煥 乙未五月二日生 辛巳八月二十日卒 生三男

라고 쓰여 있는데 이에 따르면 初娶 延安金氏(1765~1792)는 28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죽었고 再娶 密陽朴氏(1775~1821)는 47살에 아들 셋을 두고 죽었다.

이희찬이 함흥판관에 부임하던 해가 庚寅 즉 1830년이니 延安金氏는 죽은지 38년 뒤의 일이고 再娶 密陽朴氏가 세상을 떠난지 9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다. 죽은 夫人이 함흥을 구경하고 글을 썼다는 모순이 생긴다.

5) 關北邑誌【編者未詳】 5冊, 彩色地圖, 寫本. 31.3cm×21.2cm(규장각 등록번호 10995) 서울대 규장각장

때문에 「意幽堂日記」의 작자는 李義贊의 夫人 延安金氏가 결코 될 수 없고 1甲을 올라가서 그 부임연대가 일기의 年度와 일치되는 申大孫의 夫人 宜寧 南氏일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동명일기’ 속에 보면 고향을 떠난지 4년이⁶⁾ 지냈다는 말이 나는데 ‘동명일기’를 썼던 해가 壬辰年이요 회찬의 함흥판관으로 오던 해가 庚寅년이니 壬辰年에서부터 치면 庚寅은 3년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이 같은 矛盾도 作者 金氏說은 否定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나. 作者 宜寧南氏의 確定

「意幽堂日記」의 作者가 延安金氏일 수는 없고 宜寧南氏가 作者라면 果然 그리할 것일가. 「의유당유고」의 작자 고증에서 얻어진 자료를 通하여 필자는 다시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이 作者를 알아내는 데는 다음과 같은 2 가지 면에서 考覈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本 日記의 作者는 己丑年에 咸興判官으로 到任한 사람의 夫人이라야 할 것이요⁷⁾

둘째, 그 夫人의 堂號가 ‘의유당’이고 周邊事實이 「意幽堂日記」의 內容과 符合된 婦人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己丑年에 咸興判官으로 到任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國立圖書館藏 「關北誌」 卷1⁸⁾ 咸興先生案에는 歷代判官의 姓名은 부임順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到任遞罷의 年記는 없다. 다만 서울大學校 奎章閣所藏의 關北邑誌⁹⁾ 咸興 官案에는 在任年記가 기록돼 있다. 거기에 己丑

6)임직 상축을 당후야 종이를 서울 보내여 임의 돌이 넘고 고향을 써

나 사년이 되니.....〈동명일기〉

7) 李妍聖님은 이같은 조건에 맞은 사람을 찾아서 宜寧南氏일 것이라고 推定했다.

8) 國立圖書館 藏書分類記號 古2790-7

9) 註5) 참조

년에 到任한 判官은 申大孫(1728~1788)한 명 뿐인데 다음 같이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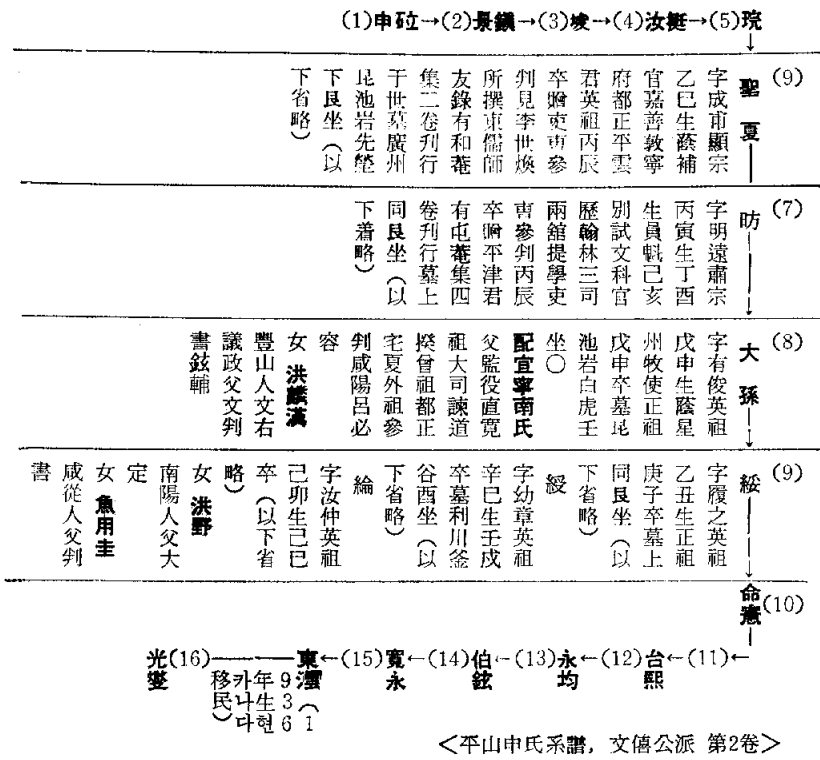
…… 李山重^{乙酉到}申大孫^{己丑到}鄭一祥^{癸巳到}甲午增慶科……
 ^{己丑罷} ^{癸巳罷} ^{以校理內移}

威興判官 到任年이 己丑인 사람은 申大孫 한 명 뿐이니 일단은 그의 夫人이 作者라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러면, 申大孫이란 분은 어떠한 사람이며 그 夫人은 어떠한 분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平山申氏系譜 第2卷(文愷公派)¹⁰⁾에 다음과 같이 그 家系가 밝혀져 있다

〈典據 1〉



10) 申泰來氏(大邱市 東城路, 一心社 社長)藏本

위의 族譜를 통해 볼 때 申大孫(1723~1788)은 壬辰亂 때 三道都巡撫使로서 忠州의 彈琴台 싸움을 이끈 有名한 申砬(1546~1592) 장군 8代 曹孫이며 吏曹參判 申聖夏(1665~1736)의 孫子이고 兩館 提學을 지낸 吏曹參判 申昉(1686~1736)의 외아들이다. 英祖 戊申(1728)에 出生, 자라서 南直寬의 따님 宜寧南氏에게 장가 들었고 南行으로 星州牧使 咸興判官등의 비수를 지내고 正祖 戊申(1738)에 세상을 떠난 累代顯官 簪纓世族 出身이다. 누이는 惠慶宮洪氏의 친경 叔父이며 右議政을 지낸 洪麟漢(1722~1776)에게出嫁하니 해정궁홍씨의 숙모가 되는 셈이다.

여기 거론된 문제는 申大孫에게 촌집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夫人인 宜寧南氏에 있기 때문에, 이는 宜寧南氏 族譜를 보면 쉽사리 알 수 있다. 「宜寧南氏大同譜」 卷1¹¹⁾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典據 2〉		老星		宗夏		道振		錫寬		紀復	
字明瑞號雲	字敬伯崇植	字汝一號三	(省略)	直寬	(省略)	紀復	(省略)	復來	(省略)	泰來	(省略)
生甲子生員	癸未生以孝	足萬顯宗王	寅生己卯進	壬申生監役	字溪叟景宗	癸卯生監役	止縣監以曾	孫鏞元貴贈	僕正丙午十	二月五日卒	○墓嶽泉洞
辛未柑製同	兼薦齊郎歷	土戶曹佐郎	庚寅文科歷	錦伯止大司	諫知製教甲	辰九月一日	卒○(以下省略)	父參判必容	祖郡守贈吏	參奎齊曾祖	府便陶吏議
年別試直赴	四邑至敦寧	都正戊戌閏	八月十六日	卒壽七十六	以子道撥貴	贈吏曹參判	○(以下省略)	字仲玉號昇	九齊顯宗甲	寅生經厚薦	監役奉事俱
翰林三司銓	郎舍人吏議	至禮曹參判	丁未十月十	六日卒○	(以下省略)	○(以下省略)	墓附左	女申大孫	女金時默	女李命權	延安人
郎舍人吏議	至禮曹參判	丁未十月十	六日卒○	(以下省略)	○(以下省略)	墓附左	女申大孫	女金時默	女李命權	延安人	清風人

11) 南潯佑氏(釜山 水晶洞居住) 藏本「宜寧南氏大同譜」 卷 15 張22

申大孫의 夫人 宜寧南氏는 肅宗 때 大司諫을 지낸 南道揆(1662~1724)의 둘째 아들인 南直寬(1692~1761)의 5 男妹 中 막내 딸이다.

그 兄夫人 淸風人 金時默(1722~1772)은 바로 正祖妣 孝懿王后의 친정 아버님이 된다.¹²⁾ 따라서 宜寧南氏는 王后의 姨母가 되는 셈이다.

己丑年에 咸興判官으로 到任한 申大孫(1728~1788)의 夫人 宜寧南氏(1727~1823)¹³⁾는 名門世家에 태어나서 簪纓華族으로 出嫁한 분일 뿐 아니라 正祖妣의 姨母요, 惠慶宮洪氏의 叔母인 申氏夫人(洪麟漢의 夫人)의 친정 올케이며, 堂號를 ‘의유당’이라고 하며 漢文・國文에 능하여 「의유당유고」¹⁴⁾라는 文集까지 남기고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친 閨房 선비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己丑年에 咸興判官으로 到任한 申大孫의 人的事項과 그의 夫人인 宜寧南氏에 對하여 알아 왔다.

그러면, 申大孫의 夫人 宜寧南氏가 과연 「意幽堂日記」를 지었느냐 하는 본來의 問題에 되돌아 온다.

첫째 : 己丑年에 咸興判官으로 到任한 사람은 申大孫 뿐이라는 점

둘째 : 공교롭게도 申大孫의 夫人의 堂號가 ‘의유당(意幽堂)’이라는 점

셋째 : 그가 남긴 「의유당유고」의 作品을 보면 國文에는 勿論 漢文에도 能한 閨方선비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意幽堂日記」는 申大孫의 夫人 宜寧南氏(1727~1823)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宜寧南氏가 「意幽堂日記」를 지었다는 文獻의 記錄이

12) 拙稿 : 「의유당유고」와 그 作者(李朝後期言語와 文學 형질출판사 1978)참조

13) 宜寧南氏의 生歿은 族譜에 나타나지 않고 다만 京畿道 廣州郡 實村面 昆池岩에 사는 그의 後孫인 申在鉉氏 所藏 「平山申氏家世舊事」(1책, 42장)라는 袖珍本에 “丁未五月十三日生 癸未正月六日卒”이라고 되어 그 生歿年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宜寧南氏의 墓所는 昆池岩 後麓에 申大孫과 合葬이 되어 있었다.

14) 이 「의유당유고」는 流麗섬세한 運筆, 淸淨無垢한 文韻 老境에 人生哀調가 풍기는 漢詩・漢文・行狀 등이 들어 있는데 漢文인 ‘影月峯夜遊勝蹟’ 같은 글은 ‘동명일기’의 수법과 동일한 느낌을 주는 淸작이다 ‘귀여우손’ ‘이덕부이시형록’ ‘유수’ 등은 그의 生涯를 진작하게 하고 그 혈연과 文學의 周邊을 밝혀주는 귀한 作品들이 모여져 있다.

미흡하다는 점에서 허전한 느낌이 없을 수 없다.

이같은 미흡한 점을 애우면서 그 作者를 宜寧南氏로 確乎不動하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밝혀진 「의유당유고」의 作者이며 申大孫의 夫人인 의유당 宜寧南氏의 周邊事實이 「意幽堂日記」속의 記錄과 符合되느냐에 달렸다. 符合만 한다면 위의 결론에 對하여서는 秋毫의 의심도 붙을 틈이 없게 될 것이다.

첫째 ‘동명일기’ 속에서 그 주변을 찾아 전주어 보자.

가. 인성이 ㄱ초 괴로와 (1)우호로 두녀 되다 아니 겨시고 (2)알들 혼참경을 ㄱ초 보고 (3)동성이 녕나하여 회피 ㄱ초 괴롭고 지통이 틈을 누르니 세상의 호풍이 업더니 (4)성주의 은덕이 망극함과 이런 더디의 와 호의호식을 하고...

〈동명일기〉

나. 그 후 되쳐 다시 보기를 계교하디 소군이 업히 막조르니 감히 생의티 못하더니 (5)일진 상축을 당하야 종이를 서울 보내여 (6)임의 돌이 넉고 고향을 세나 사년이 되니 죽은 이노 이의어니와 성면이 그림고.....

〈동명일기〉

(1) 우호로 두녀 되다 아니 겨시고

‘우호로 두녀’은 부모님을 일컫는 것이다. 宜寧南氏의 시댁으로 친다면 媼父인 申昉(1686~1737)은 아들 大孫이 9살 때 세상을 떠났고 媼母는 全州 李氏(1684~1723)와 密陽 朴氏(1707~1765) 두 분이 있는데 全州 李氏는 大孫이 나기전에 이미 죽었고 生母인 密陽 朴氏는 申大孫이 咸興判官으로 赴任하던 4年 전에 세상을 떠났다.¹⁵⁾ 시아버님을 승안하지 못했고 시어머니가 세상을 하직한 지 겨우 脫喪한 정도의 시기 밖에 경과되지 못한 處地요 게다가 ‘이런 더디의 와 호의 호식’을 하니 思親의 懷가 나서 그렇게

15) 廣州郡 實村面 昆池岩에 사는 申在鉉氏의 所藏「平山申氏家世舊譜」(寫本)에 보면 申昉의 配位에 對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配全州 李氏 父執義世爽 祖判官敏道 曾祖德興 外祖持平 順興安塾 甲子二月十二日生 癸卯十月十四日卒 墓合 娶一女 配密陽 朴氏 父天源 祖斗錫 曾祖副總管新甯 外祖清州李愷 丁亥二月十九日生 乙酉十月十八日卒 墓同岡子坐”

表現하였으라 생각된다.¹⁶⁾

(2) 알뜰호 참경을 7초보고

‘참경’이란 말은 참혹한 광경을 일컫는 말이니 逆理로 세상을 떠난 이 즉 수하에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의유당유고」에 실려 있는 ‘괴어유손’에

‘슬프다 나는 너를 아낀고 천천히 너를 죽여 버리고 호시를 상하고 늦게야 소원을 일코 너희야 십이달녀를 나하 계속 하나를 기르고……’

라고 슬희한 때문에 12男妹를 낳았지만 겨우 한 사람만 살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11남여는 자기의 눈앞에서 죽어 갔다는 것이니 이같은 逆理的 狀況은 文字 그대로 ‘알뜰호 참경’이 아닐 수 없다.¹⁷⁾

한편으로 의유당의 형인 金時默의 夫人 宜春府夫人 南氏(1721~1746)도 25살에 아들 하나만 낳고 죽었다는 사실도 함께 종합한다면 ‘알뜰호 참경을 7초 본’ 분임을 알겠다.

(3) 동생이 녀낙하여 회피 7초 피롭고

시맥 쪽으로 보면 申大孫은 男妹뿐인데 지누이인 洪氏婦 申氏夫人은 洪鳳漢의 동생인 우의정을 지낸 바 있는 洪麟漢의 夫人이기 때문에 영낙했다고는 볼 수 없으니¹⁸⁾ 이는 친정의 남매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16) 한편 친정쪽으로 보아도 그 父 南直寬(1662~1761)과 母夫人 卞氏(1692~1755)도 죽은지 각각 17년 11년이 되었으나 친정 이야기 보다는 시집 父 母에 대한 이야기가 더 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그런데, 의유당이 ‘괴어유손’을 살때 나이가 70을 넘었고 ‘동명일기’를 쓸 당시가 46살 나던 해이니 46살 이전에 몇명이 죽었는지는 알길 없으나 어릴때 많이 죽는 당시 사정으로 보아 대부분 46살 이전에 죽었으리라는 추측이 용이하다.

18) 洪麟漢(1722~1776)이 몰리어 귀양가서 죽기는 했어도 의유당이 합충에 있을 때는 그의 宦路가 잘 열려지고 있던 때이므로 영낙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의 친정 族譜¹⁹⁾에 따르면 친정 동기인 紀溟(1716~1778) 紀雲(1723~1786)은 별로 높은 벼슬을 하지 못했고 그 兄弟 똑같이 ‘以曾孫 愼元貴’라고 쓰였고 贈職벼슬이 고작 司僕寺正 밖에 안된다. 당시 그들의 親戚 또는 姻戚들의 家勢로 보아 높은 贈職을 받을 수 있을 것임에도 司僕寺正의 벼슬밖에 못받았다는 것은 零落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본다. 더구나 曾孫의 벼슬에 의해서 貴해졌다는 기록은 바로 零落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威興이라는 살기 좋은 고을의 內衙主人으로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보기 드문 풍광을 구경하다 보면 零落한 親庭과 그 同氣를 생각한다는 것은 人之常情이리라.

(4) 성주의 은덕이 많극하와

申大孫이 威興判官으로 가던 해가 英祖 45년(1769)이니 이때의 聖主는 英祖를 가리킨다. 申大孫이 吏曹參判을 지낸 申昉의 아들이요 또 正祖批 孝懿王后的 姨母夫였기에 英祖가 南行²⁰⁾으로 威興判官을 시킨 것에 對한 은덕을 말한 것이라 본다.

(5) 임진 상족을 당하여 종이를 서울 보내고……

임진년에 喪事를 당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의유당의 兄夫이며 孝懿王后的 아버지인 金時默의 죽음을 말하고 ‘종이’는 죽은 金時默의 庶子 基種을 두고 하는 말이다.

淸風金氏 世譜²¹⁾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 〈典據2〉 참조

20) 「國朝榜目」을 뒤져 보아도 申大孫이 과거에 급제한 기록이 없기에 南行임을 알 수 있음.

21) 淸風金氏世譜, 20冊, 木活字本 국립도서관장 (分類한 58 가5—476)

〈典據 3〉

(13)興祿—(14)址—(15)佑明—(16)萬育—(17)道濟—

聖集(18)

時默(19)
 字而偉景宗壬寅
 二月二十九日庚
 英宗辛酉馬庚
 午文宗辛酉馬庚
 司銓文宗辛酉馬庚
 戎使御將惠春坊
 判兵制左孫右贊
 客至崇政世堂實
 議政金吾政辰七
 二金吾政辰七
 議政金吾政辰七
 監政金吾政辰七
 配贈南氏府人
 宣寧南氏府人
 六月十七日辛丑
 役直男墓三日丙寅
 外祖參都大左辛
 必容祖配正城陽父
 西人南陽洪城乙
 亥正月二十日辛
 卒成墓父祖重進
 曾祖泰亨外祖重
 土順天金顯重進

基大(20)
 字伯豐英宗戊
 午十一月二日乙
 生甲戌司馬乙
 西率仕司馬乙
 銜歷中司馬乙
 銓郎正司馬乙
 議政正司馬乙
 卒遺稿曹參六
 有遺稿曹參六
 先贈局內人子延
 安李氏夫人子延
 月二日戊午十
 日巳四月十九
 乙巳四月十九
 源祖墓父長
 郡守華縣英輔
 性守華縣英輔
 孝懿王后
 庶子基種
 子基種
 辰八月六日庚
 正宗公實英宗
 牛耳十甲辰卒墓

宗善(21)
 (省略)
 女柳謨(省略)
 女沈能憲(省略)
 女洪稷謨(省略)

<清風金氏世譜 卷十四・3>

위에 있는 記錄을 본다면 金時默은 壬辰年 7월 29일에 죽었으니 여기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며, 基大의 동생인 庶子 基種을 ‘종이’라고 부
 른 것은 우리의 현재 관습에도 이름의 끝자만을 부르고 있는 사실을 생각
 할 때 무리없이 理解될 것이다. 아마, 申大孫이 함흥관판으로 갔을 때 산
 수도 좋은 곳에 공부도 시킬 겸 基種을 함흥 姨母家에 보냈다가 그만 當
 喪을 하여 서울로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된다.

(6) 임의 틀이 넓고

이는 姨侄 基種이 當喪하여 서울로 떠난지 벌써 달포되었다는 것이다.
 즉 두 달은 못 되고 한 달은 넘었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金時默이 죽은 날짜가 7월 29일이요,
 그해 9월 21일에 ‘동명일기’를 기록했으니²²⁾ 金時默이 죽은 날짜와 ‘동명

22) ‘동명일기’ 말미에 “구월 십칠일 가서 십팔일 돌아와 이십 일일 기록하노
 라”라고 명기되어 있음.

일과'를 쓴 날짜까지 50일 남짓하다. 서울로부터 함흥까지 訃告가 오는 그 期間을 뺀다면 한 달이 넘는 기간이니 '돌이 넘고'라는 표현과 꼭 맞는다.

이상 '동명일기'에 기록된 作者에 관한 여러 사항을 宜寧南氏의 주변과 對比해서 볼 때 矛盾을 찾아볼 수 없이 符合되고 있으니 위의 6가지 조목을 읽고서도 「意幽堂日記」는 申大孫의 夫人 宜寧南氏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남편의 威興判官 부임연대가 同日記 속의 記錄과 같고 또 堂號마저도 「의유당」이요 學識이 높은 簪纓世族의 婦人인데다가 그의 周邊事實이 '동명일기'에 나타난 作者의 사정과 일치하고 있으니, 「意幽堂關北遊覽日記」는 李義贊의 夫人 延安金氏가 아니라 申大孫의 夫人 宜寧南氏(1727~1823)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宜寧南氏가 作者로 確定됨에 따라 「동명일기」의 著作年代도 純祖 32년(1832) 壬辰年 9月21일이 아니라 英祖48年(1772) 壬辰年 9月21일 시 分明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意幽堂日記」속에 또 다른 傍證資料가 있다면 그것도 찾아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으리라.

「意幽堂日記」속에는 樂民樓 北山樓 東溟日記 春日消興 永明寺得月樓上 檄文이 收錄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永明寺得月樓上 檄文이 거기에 끼어 있을까? 威興地方에 있는 절의 上檄文이면 수궁이 가려니와 그와 다른 平壤地方의 절의 上檄文이 거기에 실려 있다는 것은 「意幽堂日記」를 說明할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즉 上檄文의 作者가 意幽堂 自身이 아니라면 그이와 관련된 무슨 事緣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平壤에 있는 永明寺得月樓 上檄文을 대개 意幽堂이 번역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²³⁾

23) 가람 이병기 선생의 「意幽堂日記」(白楊堂刊, 1948) 序文에 “得月樓 上檄文 번역도 또한 창작이라”라고 하여 번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유당 宜寧南氏가 漢詩와 漢文에 能하여 이미 ‘影月岩夜遊勝蹟’ ‘三清洞白蓮峯序’ ‘燈夕’과 같은 훌륭한 글을 남긴 분이라고 생각할 때 上樸文도 능히 지을 수 있을 분이니 得月樓 上樸文도 혹 그가 지은 것이 아닌가 의문을提起하는 바다. 이를 뒷받침하는 傍證으로서는 得月樓 上樸文에 다음과 같은 일면이 露出되고 있다는 점이다.

- 新一道澄清之化 百廢俱興
- 嚴驂駢於 長慶之區 訪風景於永明之界
- 登斯樓也 制然心月之具清
- 知夫月乎 果然名實之相得
- 白露橫江月上東

에서 볼 때 〈百廢俱興〉〈登斯樓也〉는 范希文的 ‘岳陽樓記’에서, 〈嚴驂駢於……訪風景於……〉는 ‘勝王閣序’에서, 〈知夫月乎〉, 〈白露橫江〉은 ‘赤壁賦’에서 각각 따온 글임을 一見 알 수 있으니 이는 폭이 있고 깊이 있는 文章家의 글이 아니라 아직 원숙하지 못한 年少者의 글이 아니면 閨房 아낙의 글인 것 같은 느낌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 上樸文도 意幽堂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原文을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측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 問題는 차후 여러가지로 상고한 끝에 결말을 지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가능성을 지적해 둘 뿐이다.²⁴⁾

위에 든 추측이 百分 부정되더라도 作者와 어떤 關係에서 그것을 번역하여 本日記 속에 넣었을까 하는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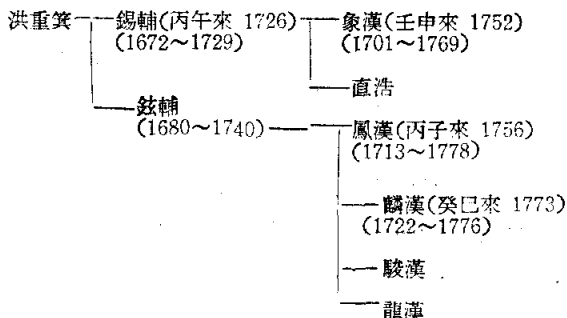
그것도 다음과 같은 면에서 본다면 上樸文이 「意幽堂日記」 속에 들어설 가능성이 짙다.

24) 이 得月樓 上樸文 속에는 洪錫輔(1672~1729) 洪象漢(1701~1769)의 父子와 蔡濟恭(1720~1799)이 등장하는데 洪錫輔와 洪象漢의 父子간의 문제는 평양감사도임 날짜로 보아 무리가 없는데 “蔡刺使之經始仙堂 若待今日”에서 洪象漢이 得月樓를 1752에 지었는데 蔡濟恭이 평양감사일 때는 22년후인 1774년이니 위에 든 글귀에 모순이 생긴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再考되어야 할 문제다.

1791년 正祖15년에 平壤監司로 갔던 洪良浩(1724~1802)의 永明寺 得月樓重修記²⁵⁾에 보면 洪象漢(1701~1769)이 英祖28년(1752)에 得月樓를 지었고 그후 40년이 지난 뒤 퇴락한 得月樓를 洪良浩가 重修하였다고 되어 있다. 洪象漢이란 사람은 惠慶宮 洪氏의 친정 堂叔이요 宜寧南氏의 媳妹夫人 洪麟漢의 四寸兄이 된다. 그러니까 得月樓의 創建이나 重修에 관계한 洪氏家門과는 姻戚이 되니 그 上樑文을 지었거나 그것을 接할 수 있었을 可能性이 크다 본다.

그 當代 洪氏家門에서 平壤監司를 지낸 분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干支로 到任年을 나타낸 분이 平壤監司를 지낸 분들이다.)



<豐山洪氏族譜 卷1 (釜山 洪起斗氏藏)>

이러한 의유당 宜寧南氏의 媳妹家의 父子 兄弟 4寸들이 平壤監司를 지냈으니 得月樓의 上樑文을 의유당이 接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구나 宜寧南氏의 媳妹夫人 洪麟漢의 後任이²⁶⁾ 得月樓上樑文에 나오는 蔡濟恭이라는 사실은 宜寧南氏가 作者일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意幽堂日記」에는 得月樓上樑文이 끼어들 가능성이 充分하다고 인정할 때 이 事實으로써 「意幽堂日記」의 著者는 宜寧南氏라는 것을 傍證하고 있다 하겠다.

25) 朝鮮研究會編：平壤續誌(京城，京城印刷所，1910) p. 279.

26) 平壤續誌(卷Ⅰ・40)의 宦蹟 觀察使條에 보면 “……洪麟漢癸巳來 蔡濟恭甲午來……”라고 되어 있다.

以上에서 장황하지만 「意幽堂日記」의 作者는 宜寧南氏라는 것을 確證하였다. 이를 간추려 보면

- (1) 남편의 赴任年代가 「意幽堂日記」에 기록된 年代와 일치하고
- (2) 己丑年에 赴任한 申大孫의 夫人 宜寧南氏의 堂號가 ‘의유당’이며
- (3) ‘동명일기’에 쓰인 作者의 사정이 宜寧南氏의 周邊事實과 符合되고
- (4) 「意幽堂日記」에 收錄되기에는 異常한, 平壤의 永明寺得月樓上檄文은 의유당의 집안 사정으로 보아 끼어들 수 있는 可能性이 짙다는 점(행여 그 上檄文의 原作者가 意幽堂일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도 했지만)
- (5) 의유당의 國文이나 漢文의 作文 솜씨가 능히 「意幽堂日記」 같은 作品을 남길 수 있다는 것 등에서

「意幽堂日記」의 作者는 純祖 때 李義贊의 夫人 延安金氏가 아니라 英祖 때 咸興判官을 지낸 申大孫(1728~1788)의 夫人 宜寧南氏(1727~1823)이라는 것이 確證되었다.

따라서 「意幽堂日記」의 ‘동명일기’도 純祖32년(1832) 壬辰9월이 아니라 1甲을 앞선 英祖48년(1772) 壬辰9월임이 틀림없게 되었다.

(의유당 宜寧南氏에 對하여 더 자세한 것은 拙稿: 「의유당유고」와 그 作者(한국 어문학회간, 「李朝後記言語와 文學」 대구, 형설출판사, 1978)를 참조할 것이다.)

Ⅱ. 「의유당유고」와 「意幽堂日記」

「意幽堂日記」는 延安金氏가 그 作者가 아니고 「의유당유고」의 作者 宜寧南氏임이 위에서 確證되었다.

「의유당유고」와 「意幽堂日記」가 同一作者임이 밝혀졌으니 이제는 遺稿와 日記와를 비교 검토해 보아 그 관계를 파악해야 할 단계라고 본다.

「의유당유고」는 그 原典을 筆者가 所藏하고 있기에 비교 검토에 별문제는 없겠지만 「意幽堂日記」는 가람 선생의 所藏한 것이었지만 發表當時 그 日記의 出處 및 書誌들을 명확하게 쓴 것이 없고 또 그 原本이 現在 有無조

차 묘연한 오늘이라 그 形態를 比較점토 하기는 어렵게 돼 있다.

白楊堂 刊의 「意幽堂日記」의 앞에 붙은 解題格인 가람 선생의 序文과 凡例를 통해 볼 때 「意幽堂日記」는

- (1) 책명은「의유당 관복유람일기」 또는 「意幽堂日記」이고
- (2) 作者는 李義贊의 夫人 延安金氏로
- (3) 기행·전기·번역을 합친 文集이며
- (4) 南九萬·朴聖源의 「北征錄」과 「한중록」보다 우위의 글이다
- (5) 썩은 古書 속에서 뒹겨나온 珍本으로서
- (6) 原本은 寫本이고 脫落 또는 誤寫된 데가 많다
- (7) 漢文문장이라도 죄다 한글로 記寫돼 있다²⁷⁾

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意幽堂日記」의 形態書誌의 기술에 있어선 다만 原本은 寫本이라는 것과 漢文 文章도 죄다 한글로 表記되고 번역문장은 먼저 원문을 쓰고 다음에 한글 번역문을 실었다는 것은 本文의 체제로 보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필자 소장 of 「의유당유고」가 原本이 寫本이며 漢文 文章도 한글로 죄다 記寫 돼 있으며 번역문은 먼저 한글로 그 原文을 쓰고 잇달아 번역문을 놓았다는 사실은 가람선생의 藏本인 「意幽堂日記」와 같다.

이런 점으로 보아 두가지 추측이 가능해 진다.

첫째, 同 日記와 遺稿는 分冊된 帙의 책이던 것이 서로 흩어져서 별개의 것이된 것일게다라는 것과

둘째, 이 두 책은 成立上으로 보면 아무 관련 없는 독립된 異種本이라는 것이다.

그 까닭은 「意幽堂日記」에 실린 內容物은 作者 宜寧南氏가 「동명일기」를 46살을 前後하여 지은 것이라고 보아지고 「의유당유고」는 58살이후 老境에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意幽堂日記」는 關北遊覽을 전후해서 만들어져 流布된 轉

27) 李秉岐 校註 意幽堂日記(서울, 白楊堂 1948), 序文 凡例 참조

寫本일 것 같고²⁸⁾ 「의유당유고」는 그가 他界한 뒤 晩年の 作品을 모은 文字 그대로 遺稿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첫째보다도 두번째가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

이같은 문제는 「意幽堂日記」原本이 나타나기만 하면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意幽堂 宜寧南氏가 50以前에 쓴 글을 모은 것이 「意幽堂日記」라면 50以後 老境에 남긴 글이 「의유당유고」임은 확실하다. 日記와 遺稿의 作品에 對한 詳論은 作品論(別稿)에서 言及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여기서서는 생략한다

Ⅳ. 意幽堂 宜寧南氏와 惠慶宮 洪氏

「의유당유고」와 「意幽堂日記」가 同一人의 作品이라고 밝혀짐과 同時 그 作品의 年代가 60년이 더 올라 가게 되었으니 우리 文學史에 있어서 이 部分만큼은 새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요 19C의 작품이 아니라 18C의 작품임이 확인됨으로써 閑中錄과 同時代의 것이 되었으니 文學史的 考證을 다시 해야 되게 되었다.

이같은 문제는 綜合的 研究가 進行된 뒤면 해결될 것이나 여기 생략하거나와 다만 이런 研究를 위한 기초로써 意幽堂과 惠慶宮과의 關係를 밝혀 둘까 한다.

筆者는 「의유당유고」를 發表하면서 그 當時 얻어진 資料를 中心으로 意幽堂의 生涯와 그 文學的 來脈을 言及한 바 있다.²⁹⁾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閑中謾錄」을 남긴 惠慶宮 洪氏와의 관계이다. 앞서 약간 언급하기도 했지만 意幽堂의 시누이 洪氏婦 申氏夫人이 惠慶宮 洪氏의 寵正 숙모가 된

28) 白錫堂刊「意幽堂日記」凡例에 보면 “영명사득 월루 상냥문 本文에는 뒤 바뀌어 적힌 句句字字가 적 많은데 그것은 번역문과 대조하여 고쳤다”라고 하였다. 이는 그 「意幽堂日記」가 作者의 原稿本이 아니고 轉寫本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29) 拙稿: 「의유당유고」와 그 作者(朝鮮後期言語와 文學, 형설출판사, 1978)

다는 것이다.

惠慶宮洪氏는 자랄 때 친정 어머니님 벼금으로 叔母인 申氏夫人의 教育을 받고서 자랐다는데 흥미가 있는 것이다.

그는 「閑中漫錄」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仲母께서 또 德行이 남다르오서 百事 받드오심이 尊姑벼금이오시고 氣
趣高潔하시며 文識이 卓越하오서 진실로 林下風味요 女中 선리라
나를 심히 사랑하오서 藝文을 가르치시고 凡百을 지도하오서 自別히 구
오시며 내 또한 先妣 갈잡게 받드오니 先妣 每樣 웃어 가라시며 ‘이 아이
그대 따름이 심하다’ 하시더라”³⁰⁾

이처럼 惠慶宮 洪氏가 文學的 素養과 凡事百節을 叔母인 申氏夫人에게 가르침과 지도를 받았다고 하니 惠慶宮의 文學的 來脈도 叔母人 申氏夫人으로부터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때 意幽堂의 文學的 周邊은 九重宮闕과 두루 연결된 화려한 환경이라 이를 지니 즉 蓬萊歌, 樂隱別曲이란 歌辭作品을 남긴 弄丸齋 南道振이 그의 從祖父가 되고 「閑中漫錄」을 지은 惠慶宮 洪氏를 가르친 그 叔母 申氏夫人이 그의 시누이가 되며, 惠慶宮 洪氏의 며느리인 正祖妣 孝懿王后가 그의 姨侄女가 되니 九重宮闕과 閨閣閨房이 두루 연결된 것이 意幽堂의 文學的 周邊인 것이다.

18C 女流文學을 代表하는 「閑中漫錄」「의유당유고」 및 日記가 宮中과 閨閣이란 다른 空間을 가졌어도 그 文學的 來脈에서 어떤 연계성을 지녔다고 볼 때, 이는 우리 文學史에 있어서 색다른 위치를 가진 흥미를 끄는 문제라고 보아진다.

V. 結 言

以上에서 여러 갈래로 구명해 보았지만 결론은 「意幽堂關北遊覽日記」의

30) 閑中漫錄(서울, 民衆書館, 1961) p. 11

作者는 延安金氏가 아니라 宜寧南氏(1727~1823)이라고 한 李妍聖님의 결론과 일치되었다.

첫째, 李義贊의 함흥판관 到任年代 및 그의 夫人들의 行歷으로 보아 도저히 그의 夫人인 延安 金氏가 作者일 수는 없고

둘째, 「意幽堂日記」속의 기록과 견주어 볼 때 咸興判官의 부임연대가 作品 속의 연대와 일치하고 그 내용이 그의 夫人의 行歷과 부합하는 申大孫(1728~1788)의 夫人 意幽堂 宜寧南氏(1727~1823)가 「意幽堂日記」의 作者이며 따라서 ‘동명일기’가 쓰여진 年代로 順조32년 1832년 9월이 아니라 意幽堂이 46살 나던 英祖 48년 1772년 9월인 것이 틀림 없었다.

셋째, 「意幽堂日記」는 대개 50以前에 쓴 글을 모은 것이고 「의유당유고」는 50以後 老境에 지는 글을 그가 죽은 뒤 遺稿를 모은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네째, 得月樓上樑文도 의유당의 작품일 수는 없겠는가 하는 可能性을 지적하였고

다섯째 : 18C 女流文學을 代表하는 「閑中漫錄」과 「意幽堂日記」및 「의유당유고」가 비록 宮中과 閨閤이란 다른 空間을 가졌어도 來脈에 있어서는 相關하고 있다는 점에서 文學史에 있어서 색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하였다.